

고려초기 정국과 서경*

김 창 현**

- I. 머리말
- II. 태조~광종 때 서경 경영
- III. 경종·성종 때 정국과 서경
- IV. 천추태후 섭정과 목종 12년 정변
- V. 현종 때 정치세력과 서경
- VI. 맺음말

요약

이 논문은 고려초기 서경을 정치상황과 관련해 고찰한 것이다. 태조는 평양에 서경을 경영하고 개경정부와 동등한 서경정부를 만들었다. 태조는 치세 말기에 후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경에 행차하지 않았지만, 혜종정권은 임진강 이북 북부세력에 의해 와해되었다.

서경세력은 정종을 추대해 서경천도를 시도했지만, 광종을 내세운 평주·황주를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에게 패배당했다. 광종은 개경을 皇都, 서경을 西都라 하였다. 평주세력과 황주세력이 집권했지만 전자는 광종 중기에, 후자는 말기에 숙청당했다. 이러한 결과 경종 때 서경·평주·황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50-A00001).

**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투고일 2005. 11. 1.
심사일 2005. 11. 17.
심사완료일 2005. 12. 2.

주 출신의 관료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성종은 치세 후반기에 전통과 西都를 중시했다. 서도를 중앙집권체계의 일환으로 西京留守라 하여 격하했지만 동경보다 우위에 두었다. 목종 때 천추태후 세력은 북부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는데 서경유수를 鎬京으로 승격해 중시했다.

천추태후 세력과 대량원군 세력이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갈등했다. 대량원군 세력이 정변을 일으켜 현종을 옹립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현종은 호경을 서경유수로 격하했지만 서경을 우대했다. 삼각산 주변 사람들이 현종 옹립에 공헌해 정계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양주의 지위가 상승했으며, 임진강 이남 중부세력이 요직에 포진하였다.

주제어 : 서경과 서경 세력, 평주 세력, 황주, 천추태후 세력, 대량원군 세력



I. 머리말

고려시대 西京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을 상징하고 풍수·정치·국방(군사)에서 중요해 개경에 버금가는 도시였음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연구자들은 고려초기에 서경 내지 서경세력이 당시 정국의 향방과 밀접히 관련된 점에 주목했다. 이태진은 평주를 포함한 패서 내륙세력이 곧 서경세력이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패서 해안지역까지 포함한 패서 지역 전부를 서경세력으로 파악했다. 또한 평주가 세력이 컸지만, 서경 인근이기 때문에 왕후족을 배출한 황주가 서경세력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하현강은 광의의 서경 즉 서경세력권을 절령(자비령) 이북으로 한정했다. 이해옥과 강옥엽은 하현강의 광의의 서경 개념에 근거해 패서 지역 즉 예성강 이서·이북 전부를 서경세력권 내지 서경의 관할로 파악했는데 하현강의 개념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¹⁾

나말여초에 패서지역은 대개 예성강 이서·이북 지역을 지칭했다. 절령 이북만이 아니라 예성강 서북~절령 일대까지 서경세력권으로 파악하

1) 하현강, 1967 「고려서경고」 『역사학보』 35·36 및 1970 「고려서경의 행정구조」 『한국사연구』 5 ; 1988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이태진, 1977 「김치양 난의 성격」 『한국사연구』 17. 이해옥, 1982 「고려초기 서경세력에 대한 일고찰」 『한국학보』 26. 강옥엽, 1998 『고려 전기 서경세력의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태조의 배우자인 황주 皇甫梯恭의 딸은 후술하듯이 ‘왕후’가 아니라 황주원 ‘부인’이었기 때문에 황주를 태조 왕후족의 측면에서 중시한 이태진의 견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해옥과 강옥엽은 ‘패서도’를 광의의 서경이라 정의한 하현강의 견해에 기초해 패서지역(예성강 이북)을 서경세력권으로 파악했지만, 이 ‘패서도’는 하현강이 밝혔듯이 절령 이북의 북계(서북면)였으니, 패서지역이 성종 때 ‘패서도’와 관내도로 분할된 것을 간과한 듯하다.

는 견해들은 서경으로 徙民된 주축이 패서지역이라는 데에 근거하고 있지만 논리 비약으로 보인다. 패서인들의 일부가 이주된 것이고, 평주 庾黔彌과 박수경 집안이 포함되지 않은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주력은 가지 않았다. 개경 관문인 평주는 물론 백주, 염주, 해주 일대는 송악의 왕건 집안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개경의 영향력이 서경보다 훨씬 많이 작용한 곳이었다.2) 특히 평주는 패강진 설치 이래 독자적인 강력한 힘을 지녀 왔으니 그 일대를 평주세력권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예성강 이서·이북 전부를 서경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절령이남~예성강 이북이 서경 관할도 아니었다. 궁예는 패서지역으로 진출해 패서 13鎭을 설치하고 平壤城主 黔用의 항복을 받았다.3) 성종 때 절령 이북의 서경 소관은 ‘패서도’(후에 서북면), 土山·황주·洞州를 포함한 절령 이남은 ‘관내도’(후에 서해도)가 되었는데, 단 안악·황주·철화·장명·토산(상원)은 훗날 서북면에 속하게 된다.4) 서경세력권은 절령 이북으로 일단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다만 서경 관문인 황주·洞州 일대는 때에 따라 포함시킬 수 있다.

본고에서는 태조~현종대를 고려초기로 설정해 고려왕조의 서경경영을, 패서세력이 곧 서경세력이 아니라 서경세력이 평주세력과 함께 패서세력의 핵심이라는 시각에서 정국과 관련해 다루려 한다. 서경세력에 매몰되지 않고 시기에 따른 변화의 내용을 추구하려 한다. 서경세력이 왕권

2) 塩州·白州 사람들은 왕건의 조부 작제건을 위해 영안성을 쌓았다. 왕건의 조모는 平州 豆恩站 각각의 딸이었고, 조모와 부친 용건은 평주 박씨 집안의 승려 順之를 후원했다. 왕건은 ‘開京西北 海州之陽’에 廣照寺를 창건해 利嚴을 머물게 했다. 『고려사』 세가 앞 「高麗世系」; 요오화상·진철대사 비문. 고승비문은 이지관 편,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고려편)』 참조.

3) 『삼국사기』 권50, 궁예전.

4) 『고려사』 권58, 지리지 3, 서해도·북계. 원래 안악은 풍주에, 철화와 장명은 황주에 속했다. 土山은 소속이 洞州→황주→평양으로 바뀌어 갔다. 『고려사』 권94, 이주현·안소광전; 『고려사』 권105, 조인규전.

의 지지기반이라는 견해들이 제기되었는데 시기 혹은 왕들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히려 하며, 서경관제⁵⁾에서 서경, 서경유수, 호경 등으로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루려 한다.

II. 태조~광종 때 서경 경영

태조 왕건은 원년 9월에, 평양 古都에 徙民하여 藩屏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평양을 大都護로 삼고 황주, 봉주, 해주, 백주, 염주의 人戶를 나누어 옮기고 사촌동생 왕식렴과 광평시랑 列評을 파견해 지키게 하고 叅佐 4, 5인을 두었다.⁶⁾ 2년 10월에 평양에 성을 쌓았고, 4년 10월에 ‘西京’에 행차했다.⁷⁾ 평양대도호부는 태조 4년 무렵에 서경으로 승격되어 있었으니 개경과 서경의 兩京制가 시행된 것이었다.

태조는 5년에 大丞 質榮·行波 등 父兄子弟 및 여러 군현의 양가자제를 옮겨 서경을 채웠고, 서경에 행차해 官府員吏를 새로 두었다.⁸⁾ 김행과는 洞州 사람이고, 박질영은 평주 사람으로 여겨지므로⁹⁾ 이 때 평주와 동주 사람들도 서경으로 이주된 것이었다. 이 해에 在城이 서경에 쌓여지기 시작했다.¹⁰⁾ ‘在’는 방언인데 ‘𨵿’을 의미했으니, 재성은 도량(해자) 혹은

5) 서경관제를 다룬 대표적 논고는 하현강, 앞의 논문; 이근화, 1987a 「고려 태조대 북방정책의 수립과 그 성과」, 『박성봉교수회갑기념논총』 및 1987b 「고려성종대의 서경경영과 통치조직」, 『한국사연구』 58 등이 있다.

6) 『고려사』 권1, 및 『고려사절요』 권1, 태조 원년 9월; 『고려사』 권92, 왕식렴전.

7) 『고려사』 권1, 태조 2년 10월; 『고려사』 권1 및 『고려사절요』 권1, 태조 4년 10월.

8) 『고려사』 권1, 및 『고려사절요』 권1, 태조 5년.

9) 『고려사』 권88, 후비전 1, 태조 대서원부인; 이수건, 1984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159쪽.

골짜기로 둘러싸인 성으로 보인다. 고려의 서경 경영은 태조 5년에 대략적인 뼈대가 갖추어졌던 것이다. 태조는 21년 7월에 서경 나성을 쌓았는데,¹¹⁾ 이는 태조대 서경 경영의 완성을 의미했다.

이러한 태조의 적극적인 서경경영으로 이주자들이 정착하면서 서경 세력이 형성되었는데, 이주의 다수를 차지한 황주, 봉주, 해주, 백주, 염주, 평주, 洞州 등 패서 출신이 주축을 이루었다. 왕건은 고구려계승을 내세워 왕위를 탈취했으므로 그것의 합리화를 위해서 평양경영을 해야 했으며, 패서세력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 일부의 평양 이주를 거부하기 어려웠다.

태조는 5년에 서경에 官府員吏를 새로 두었다. 『고려사』 권77, 백관지 서경유수관조에 속관연혁이 첨부되었는데, 태조대에 두어진 것들이 실려 있다. 태조 5년에는 廊官에 시중 1인, 시랑 2인, 낭중 2인, 上舍 1인, 史 10인이 두어졌으며, ‘廊’은 官號로 방언인데 ‘曹設’을 뜻했다. 衙官에 具壇 1인, 卿 2인, 監·祭·理決·評察·史 각 1인이 두어졌으며, ‘衙’ 역시 관명으로서 방언인데 ‘豪幕’을 뜻했다. 兵部令에 具壇 1인, 卿 1인, 大舍 1인, 史 2인이 두어졌다. 그 외에 納貨府, 珍閣省, 內泉府令이 두어졌다. 6년에는 內泉府가 진각성에 병합되었고, 9년에는 國泉部令, 17년에는 官宅司·都航司·大馭府가 增置되었다. 이들이 바로 서경을 지배한 官府員吏이니, 성종 14년 이후의 서경유수관의 속관으로 기록된 것은 오류로 판단된다.

10) 『고려사』 권82, 병지2 城堡, 태조 5년. “在者方言畎也”라 되어 있다. 畎은 水溝 혹은 山谷을 가리킨다. 경주 월성에서 ‘在城’이라 적힌 유물이 나왔는데, 월성이 水溝, 해자 혹은 山谷을 따라 쌓여졌기 때문일 것이다. ‘在’가 방언이고 ‘畎’이 뜻풀이 한자임은 “高興縣 本高伊部曲 高伊者方言猫也”(『고려사』 권57, 지리지 보성군)에서 유추된다.

11) 『고려사』 권2, 태조 21년 7월. 在城과 羅城 축조 목적은 이주자 보호와 외적 방어를 위한 것이다.

廊官은 하현강(1970)이 지적했듯이 시중과 시랑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앙의 광평성에 해당한다. 衙官은, 이근화(1987②)가 지적했듯이 理決과 評察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앙의 내봉성에 해당하는데, ‘衙’가 豪幕 즉 막부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 중앙의 徇軍部에 해당하는 기능도 지녔다고 여겨진다. 병부령은 중앙의 병부에 해당할 것이다. 廊官, 衙官, 병부령이 핵심관부였고, 그 보조 관부로 납화부 등이 마련되었다. 하현강은 서경행정의 최고기관인 廊官을 속관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근화는 廊官과 그 외의 모든 관부를 속관으로 파악했다. 태조 때 서경에 마련된 낭관, 아관, 병부령 등의 관부는 속관이 아니라 서경정부였다. 서경은 留守京이 아니라는 점, 조직이 개경 중앙정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개경과 대등한 위상을 지녔음을, 주요 관부의 명칭에 방언을 썼다는 점에서 전통의 보루였음을 알려준다.

태조 5년에 大丞 박질영과 김행파가 사민자들을 이끌고 감과 동시에 서경 官府員吏가 新置되었으니, 이 두 사람이 그 핵심에 임명되었을 터이고, 원년에 파견된 왕식렴과 광평시랑 列評도 핵심에 임명되고 叅佐 4, 5인도 요직을 차지했을 것이다. 박질영은 태조 원년 6월에 광평성 시중을 지낸 적이 있었다.¹²⁾ 왕식렴은 태조 후반에 대승의 바로 아래인 佐丞에 임명되었으니, 박질영과 김행파보다 서열이 낮았는데, 태조의 근친인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박질영이 전력으로 보아 서경 廊官의 시중을, 김행파·왕식렴이 관부의 장관을, 열평이 장관 내지 차관을 차지했을 터인데, 왕식렴은 衙官 혹은 병부령의 장관을 띠었을 것이다. 서경의 통치는 박질영이 정무권을, 왕식렴이 군사권을 장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서경 이주는 金猛의 조부가 경상도 梁州 의춘현에서 서경으로 이주했

12) 『고려사』 권1, 태조 원년 6월.

듯이¹³⁾ 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패서 출신이 다수를 이루고 서경 정부의 요직을 차지해 민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했다. 그 결과 서경세력이 형성되고 패서지역의 여러 고을들과 정서를 공유했지만 급조된 이주집단이라 결집력이 약했으며 서경세력이 곧 패서세력은 아니었다. 고려의 주축인 임진강 이북의 북부세력¹⁴⁾은 여러 고을이 독자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평주가 강력했다. 패서세력은 평주세력과 서경세력으로 양분된 양상이었으니, 이 두 세력은 시대상황에 따라 협조하거나 갈등하게 된다.

태조는 3년부터 17년까지 서경에 9회 행차하여 州鎮을 순력하거나 齋祭를 지냈다.¹⁵⁾ 그런데 태조는 17년 정월을 마지막으로 서경에 행차하지 않았다. 이는 나주 오씨 소생의 정운 武의 순조로운 계승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정계 주축인 임진강 이북의 북부지역(서경 포함)이 정운 무의 계승을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서¹⁶⁾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서경에 행차한다면 그곳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었다. 서경세력을 포함한 북부세력이 태조의 왕권과 정운의 계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태조는 15년 5월에, 서경 경영의 목적이 地力에 기대어 삼한을 평정하고 장차 이곳에 도읍하고자 한 것이라 밝혔다.¹⁷⁾ 하지만 26년 4월 혼요에

13) 『고려사』 권94, 김맹진.
 14) 패서세력은 예성강~임진강 일대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진강 이북 세력을 북부세력이라 표기했다. 국경이 나말여초에 대동강~청천강에서 움직이고 성종 말기에 가서야 압록강에 도달하므로 임진강 이북을 북부지역으로 파악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15) 『고려사』 권1·2, 태조세가 및 『고려사절요』 권1, 태조. 북계를 포함하면 11회였다. 장상훈은, 서경 齋祭가 고구려 계승과 구고구려지역 호족 통합을 위해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1996 『고려 태조의 서경정책』 『고려 태조의 국가경영』, 서울대출판부, 166쪽.
 16) 평주 사람인 庾黔弼은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그의 딸은 왕건과 결혼해 효은태자를 낳았다. 그런 그가 태조 14년에 유배되었는데, 정운 武의 계승에 반발했기 때문일 것이다.
 17) 『고려사』 권2, 및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5년 5월.

는 천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서경은 水德이 調順해 지맥의 근본이 되어 대업 만대의 땅이니 四仲月에 巡駐해 100일 이상 머물러 안녕을 가져오기를 당부했다.¹⁸⁾ 태조의 서경정책이 말기에 변한 것이니 정윤의 계승에 서경세력이 도전할 것을 염려한 때문이라 하겠다.

제2대 혜종은 장화왕후 오씨 소생으로 세력기반이 나주에 있었으며, 혜성(당진) 출신의 박술희를 후원자로 두었다.¹⁹⁾ 그 외에 鎭州 林曦의 딸, 廣州 왕규의 딸, 청주 김공률의 딸, 경주 連父의 딸과 혼인해 이들 집안의 도움을 받았다.²⁰⁾ 혜종의 세력기반은 남부·중부에 치우친 반면 고려건국과 후삼국통일을 주도한 정계의 주류인 임진강 이북 북부지역²¹⁾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서경과 평주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에 대한 혜종의 대우는 태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며, 북부지역 사람들의 혜종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져 갔을 것이다.

이러한 틈을趁주 신명왕후 劉氏 소생의 定宗과 광종이 파고들어 북부세력과 손을 잡아 정변을 일으켰는데, 무력동원 핵심은 서경 왕식렴과 평주 박수경이었다.²²⁾ 서경세력과 평주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임진강 이북 북부세력은 혜종정권 타도에는 이익을 공유해 협력했다. 혜종은 재위 2년 4개월만에 죽고, 정종이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즉위했다. 정종은 도참을 빙자해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서경에 왕성과 궁궐을 만들었으며 개경 民戶를 뽑아 서경을 채웠지만 많은 반발을 받았다.²³⁾ 정종과 왕식렴은

18) 『고려사』 권2, 태조 26년 4월.

19) 『고려사』 권88, 후비전1 태조 장화왕후 ; 『고려사』 권92, 박술희전. 혜종이 鄉里小人을 항상 畝內에 거처하게 했다는 언급(『고려사』 권93, 최승로전)이 참고된다.

20) 『고려사』 권88, 후비전 1, 혜종.

21) 이는 『고려사』 후비전에 실린 태조의 배우자 29명 가운데 무려 11명(평주 출신 4명: 유금필의 딸, 박지윤과 아들 박수문·박수경의 각각 딸)이 임진강 이북 출신인 점, 통일전쟁에서 평주 사람인 庾黔彌와 박수경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진 점에서 알 수 있는데, 특히 평주가 핵심으로 가히 평주세력이라 칭할 만하다.

22) 『고려사』 권92, 왕식렴·박수경전.

23) 『고려사』 권2, 및 『고려사절요』 권2, 정종 2년·4년.

서경 천도까지 강력히 추진할 정도로 왕식렴의 근거지인 서경을 매우 중시했다. 정종의 서경 궁궐은 장락궁으로 여겨진다.²⁴⁾ 태조가 평양을 서경으로 칭하고 정종이 장락궁을 건설한 것은 평양을 중국의 서도 장안에, 개경을 중국의 동도 낙양에 비유함이니, 평양을 고려의 근원지로 보는 인식이 투영되었다.

왕식렴과 정종은 서경천도를 이루지 못한 채 정종 4년 정월과 3월에 차례대로 죽었다.²⁵⁾ 혜종·정종·광종이 서로 계승하는 초기에 兩京 문무반의 절반이 살상당했으므로²⁶⁾ 정종 즉위과정은 물론 광종 즉위과정도 정변으로 보여진다. 정종 즉위과정에는 개경의 혜종 세력이 피해를 많이 당한 반면 광종 즉위과정에는 서경 세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²⁷⁾ 정종 지지세력은 왕식렴의 서경세력이 핵심이었다. 광종 지지세력은 박수경의 평주세력을 핵심으로 대목왕후의 황주와 광종의 養家인 신주 등이 가세하는 양상이었을 것이다.²⁸⁾ 이는 서경세력의 분열이라기보다 패서지역이 곧 서경세력이 아닌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패서지역은 고구려적 요소를 공유했지만 서경과 평주를 중심으로 이해 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했다.

광종이 즉위했을 때 권력핵심은 막강한 무력을 지닌 평주 사람들과 대목왕후의 연고지인 황주의 사람들이었다. 평주 사람들은 후술하듯이 박수경과 그 아들 박승위·박승경·박승례를 중심으로 하고 효은태자(유

24) 현종이 6년 3월에 김훈 제거를 도모한 장락궁(『고려사』 권4)이 정종 궁궐로 보인다. 장락궁은 한 고조가 장안성 안에 축조한 궁궐 명칭에서 유래했고, 고구려 때 쌓여진 장안성과 관련된다.
25) 『고려사』 권2, 정종 4년 정월·3월.
26) 『고려사』 권93, 최승로전.
27) 하현강(1967·1988)은 서경세력이 광종 즉위후 숙청당해 개경세력과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했지만, 광종 즉위과정에 타격받은 서경세력은 개경과 달리 인적 자원이 부족해 재기하기 어려웠다.
28) 『고려사』 권88, 후비전 1, 태조 신주원부인 강씨·광종 대목왕후 황보씨. 박수경이 광종 즉위의 공신임은 그가 광종 즉위년 8월에 국초 功役者를 旌定한 데(『고려사』 권2)에서 짐작된다.

금필의 외손)의 후원을 받았다. 황주는 후술하듯이 황보광겸·황보위광을 중심으로 활약했는데 태조의 배우자인 황주원부인(신정태후) 황보씨와 그 자녀인 대목왕후(광종 배우자) 황보씨·황주원낭군 王旭(대종)의 후원을 받았다.²⁹⁾ 서경세력은 약화된 반면 평주와 황주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다.

광종은 7년에 노비안검법을, 9년에 과거를 시행하면서 공신, 호족의 힘을 약화시켜 나갔다. 11년 3월에 개경을 皇都, 서경을 西都로 삼았다.³⁰⁾ 이는 개경이 황제 거주지 수도임을 천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서경(서도)을 낮춘 것이었다. 광종이 긴 재위 동안 서경에 행차한 기록이 없음은 그가 서경을 중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광종은 11년 3월에 大相 俊弘과 佐丞 王同 등을 역모죄로 쫓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왕족, 공신, 호족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해 나갔다. 15년에 박승위, 박승경, 박승례 등이 옥에 갇히고 부친 박수경은 사망했으며, 효은태자도 반역죄로 광종에게 죽임을 당했다.³¹⁾ 11년 이래의 숙청으로 공신과 호족이 쇠퇴하고 평주 세력이 몰락했다. 하지만 황주 세력은 건재해 이웃한 서경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 황주와 서경은 하나의 세력권이 되었을 것이다. 광종 16년 2월에 대목왕후의 아들인 佁가 元服을 입고 王太子·內史·諸軍事·內議令·正胤에 임명되어³²⁾ 후계자로 확정되면서 황주세력의 힘은 더욱 커져 갔을 것이다.

그런데 광종 후반에 황주 황보씨 관료가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현

29) 『고려사』 권88, 후비전 태조 신정왕태후 황보씨·광종 대목왕후 황보씨; 대안사 광자대사 비문.

30) 『고려사절요』 권2, 광종 7년·9년·11년. 광종의 칭제건원과도 관련된다. 하현강(1967)은 수도를 개경으로 확정지어 서경천도 기운을 제거한 조치로 평가했다.

31) 『고려사』 권2, 광종 11년 3월; 『고려사』 권92, 박수경전; 『고려사』 권88, 후비전 태조 동양원부인 庾氏; 『고려사』 권90, 종실전 태조 효은태자.

32) 『고려사』 권2, 광종 16년 2월.

상이 보인다. 내의령 太相 皇甫□□라는 인물이 광종 2년에 활약했다. 광종 10년에 佐丞 王兢과 佐尹 皇甫魏光을 周에 파견해 선물을 헌정했다. 내의성령 匡謙, 내봉성령 俊弘, 시중 仁奉이 통일대사비에 나란히 기재되었다.³³⁾ 준홍은 광종 11년 3월에 숙청당했고, ‘匡謙’은 皇甫光謙으로 여겨진다. 宰臣 王威敏·皇甫光謙·徐弼이 광종으로부터 酒器를 받았는데, 서필은 광종 16년에 대광 내의령으로 사망했다.³⁴⁾ 皇甫□□, 황보광겸, 황보위광은 황주 출신으로 보인다. 이렇게 광종 전반기에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황주 황보씨 관료들이 광종 후반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황주원 낭군 왕옥의 누이인 대목왕후는 광종 6년에 경종을 낳고 7년에 노비안검법을 반대한 후 보이지 않는데, 광종 후반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³⁵⁾

광종 후반기에 황보씨 관료와 대목왕후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20년 11월에 ‘王弟 旭이 추하다’³⁶⁾ 라는 기사에 담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종은 그에 대한 광종의 말년 疑忌로 인해 동궁에서 매양 불안해하다가 다행히 悔尤를 면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최승로는 회고했다.³⁷⁾ 광종 말년에 정윤 侁 즉 경종까지 광종에 의해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간신히 살아났다는 것이니, 정윤의 친지들이 많이 숙청당했음을 시사한다. 황주 출신의 승려 균여는 귀법사의 초대주지를 맡다가 광종 19년에 귀법사의 승려 正秀로부터 異情을 닦고 있다고 고발당했다. 광종은 균여를 해치려다가 그만두었으며, ‘神人’의 경고를 받고 정수를 배었다. 하지만 균여는 귀법사에 유폐당하고 그와 절친한 최행귀가 살해당했으며, 탄

33) 봉암사 정진대사 원오탑비 ; 『고려사』 권2, 광종 10년 ; 각연사 통일대사비.
 34) 『고려사』 권93, 서필전.
 35) 대목왕후 황보씨는 『고려사』 권88, 후비전에 ‘懿 諡大穆王后’로 되어 있다. 그녀는 아들 경종 때 생존했으면 ‘태후’로 기재되어야 하니 광종 때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경종이 즉위년 10월에 六代 考妣에게 존호를 더할 때 태후를 추증받았을 것이다.
 36) 『고려사』 권2, 광종 20년 11월.
 37) 『고려사』 권93, 최승로전.

문이 귀법사의 새 주지가 되었다.³⁸⁾ 황주세력은 대목왕후 및 정운을 내세워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인 균여를 구해냈지만 권위에 상처를 입은 광종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가 광종 20년 황주원낭군 王旭(대목왕후의 형제)의 죽음으로 나타났다고 여겨진다.

王旭은 살해당하고, 이 무렵 황보씨 관료들도 대거 숙청당했을 것이다. 대목왕후도 이 무렵에 살해당했거나 숙청에 충격받아 사망했을 것이다. 귀법사에 유폐된 균여는 광종 24년 6월에 죽었는데 타살 가능성이 크다.³⁹⁾ 광종 25년에 서경 거사 緣可가 반역을 꾀했다가 살해당했으며, 그 다음해 5월에 광종이 사망했다.⁴⁰⁾ 서경 거사 연가의 반역은 서경과 황주에 가해진 숙청에 대한 반발로 여겨지는데 서경·황주 쪽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광종 쪽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광종 때 활약한 인물로 황주와 연고가 있는 황보광겸, 황보위광, 대목왕후, 王旭, 균여 등이 광종 후반에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왕욱과 균여만 기록에 죽었다고 나올 뿐인데 그 죽음도 수상했다. 광종 후반기, 아마 말기에 황주세력이 광종에 의해 숙청당했다고 판단된다.

38) 『균여전』; 법인국사(탄문) 비문.

39) 균여가 김해에서 일본으로 가려 한다고 말하고는 사라졌다는 장계를 金海府使가 올렸는데 그 날 균여가 귀법사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이는 균여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님을 시사한다.

40) 『고려사』 권2, 광종 25년 및 26년 5월. 김두진은 ‘神人’을 황보씨와 같은 대호족으로 파악하고, 광종 말년에 호족들이 다시 득세한 결과 광종이 피살되었다고 보았다. 1979 「고려 광종대의 전제왕권과 호족」 『한국학보』 15.

III. 경종·성종 때 정국과 서경

경종은 광종 말년의 격변으로 인해 위기에 몰렸다가 정운으로서 가까스로 왕위를 계승했다. 왕실 여인들의 영향력이 컸는데, 최고 어른은 태조의 배우자로 경종의 조모인 황주원부인(신정태후) 황보씨였다. 그녀와 사망한 대목왕후 황보씨의 연고지인 황주 및 그 인근 서경이 중요 지역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곳 출신 관료는 이전에 대부분 숙청당했기 때문에 권력의 주체가 되기 어려웠다.⁴¹⁾

경종의 배우자는 경순왕의 딸인 현숙왕후 김씨, 문원대왕 王貞(광종의 동생)의 딸인 현의왕후 劉氏, 王旭의 딸인 현애태후(현애왕후로 부르겠음)와 헌정왕후 황보씨 자매, 원장태자(태조 정덕왕후 柳氏 소생)의 딸인 대명궁부인 柳氏가 있었다.⁴²⁾ 경종은 11세에 성년식과 함께 정운에 책봉되었으니 21세로 왕위에 오르기 전에 결혼했을 것이다. 광종은 아들이 귀했기에 정운을 일찍 결혼시켰을 것인데, 그 대상이 자신의 누이 낙랑공주와 결혼하고 태조에 의해 政丞에 임명된 경순왕의 딸인 현숙왕후 김씨로 파악된다. 그러한 배경에는 광종이 경주세력을 성장시켜 대목왕후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었을 것이다. 경종은 즉위년 10월에 현숙왕후의 부친인 樂浪王·政丞 김부에게 ‘尙父’를 더했다.⁴³⁾ 연구자들은 대

41) 강옥엽은 경종대에 서경세력(곧 패서세력)이 눈에 별로 띄지 않은 이유는 왕후족 황주계가 중심이 되어 왕권과 밀착되었기 때문이라 보았다(앞의 논문).

42) 『고려사』 권88, 후비전1, 경종.

43) 『고려사』 권2, 경종 즉위년 10월 ; 『삼국유사』 권2, 紀異 제2, 金傳大王. 김부가尙父로 높여지면서 먼 칭호는尙父·都省令·樂浪都王이었다. 여기의 낙랑은 경주의 별칭이었다. 『고려사』 권57, 지리지 2, 동경유수관.

개 이를 결혼기념으로 파악하지만 임금 등극 기념으로 판단된다. 『삼국유사』에는 경종 卍가 정승공의 딸을 妃로 삼았는데 이 분이 憲承皇后가 되니 정승을 尙父로 삼았다고 되어 있다. 광종이 정승 김부의 딸을 정윤의 妃로 들이며 김부를 낙랑왕에 책봉하고, 경종이 황제에 오르자 그녀를 헌승황후로, 김부를 尙父로 삼았다고 여겨진다.⁴⁴⁾ 황주원부인 황보씨는 손자 경종이 즉위하자 광종말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황주세력을 복원하기 위해 손녀 현애·헌정 왕후 자매와 결혼시켰을 것이다. 현애왕후는 후술하듯이 목종이 崇德宮 嫡男이라 불린 것으로 보아 崇德宮主로 불렸고, 경종 때 동생과 함께 ‘王妃(皇妃)’ 혹은 ‘妃’였을 것이다.

경종은 원년(976) 6월에 황주원의 두 낭군에게 元服을 입히고 황주원을 명복궁으로 승격시켰다.⁴⁵⁾ 이에 따라 황주원부인 황보씨는 명복궁대부인으로 승격되었다.⁴⁶⁾ 두 낭군에는 훗날의 성종이 포함되었는데 17세였다. 황주원낭군 형제는 황주원낭군 王旭(대종)의 아들, 현애왕후·헌정 왕후의 형제, 황주원부인 황보씨의 손자였다. 황주원부인 즉 명복궁대부인 황보씨는 손자인 경종, 손녀·손자인 현애왕후 자매와 황주원낭군(명복궁군) 형제⁴⁷⁾를 내세워 황주세력 내지 서경세력의 복원에 매진했던 것이다.

44) 김부 딸의 시호는 獻肅王后였다. 그녀의 생존시 호칭은 憲承皇后였다고 여겨진다. 광종이 칭제건원했고, 경종도 황제로 불렸다(하남시 마애약사상). 그래서 김부는 樂浪王(樂浪都王), 광종의 동생 王貞은 文元大王이 될 수 있었다. 『삼국사기』 권 12, 신라본기 경순왕 9년조에 “至景宗獻和大王 聘正承公女 納爲王妃 仍封正承公爲尙父”이라 하여 경종이 왕위에 오른 후 김부의 딸과 혼인한 것으로 기술된 부분은 연구자들에게 대개 그렇게 파악하도록 하는 경향을 낳았다.

45) 『고려사』 권2, 경종 원년 6월.

46) 이러한 사례로 보건대 태조의 배우자 가운데 태조 생존시에 왕후 칭호를 띤 여인은 가장 먼저 결혼한 貞州 신혜왕후 柳氏, 두 번째로 결혼하고 정윤을 낳은 나주 장화왕후 오씨 정도이고, 나머지는 夫人(소수는 大夫人)의 칭호를 띠었을 것이다.

47) 황주원낭군 王旭(대종)의 아들은 효덕태자, 성종, 경장태자였으니 이들이 바로 황주원낭군 내지 명복궁낭군이였다.

정종과 광종의 계승전쟁, 광종 중·말기의 대숙청을 거치면서, 최승로가 勳臣·宿將이 죽임을 당해 경종이 즉위했을 때 舊臣 가운데 생존한 자가 40여 명 뿐이었다고 회고하였듯이,⁴⁸⁾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에 주역을 담당했던 舊臣은 대부분 사라졌다. 경종이 즉위하자 王誥이 집정이 되어 權豪로 불릴 정도로 권력을 장악했는데,⁴⁹⁾ 이는 잔존한 舊臣과 그 자체의 집권을 의미하고 황주원부인(명복궁대부인) 황보씨 진영의 지지를 받았다고 여겨진다. 경종은 선왕 때 참소를 당한 사람의 자손에게 복수를 허용했는데⁵⁰⁾ 잔존한 구신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가 허용되면서 정국은 혼돈에 빠졌다. 태조의 아들인 천안낭군·鎭州郎君까지 살해당했다. 경종은 원년 11월에, 왕명을 빙자해 천안부원낭군을 살해했다는 명목으로 집정 王誥를 쫓아내고 복수를 금지했다.⁵¹⁾ 舊臣의 대표자 왕선의 실각은 그 반대세력의 저항이 거셌음을, 그로 인해 명복궁대부인 황보씨 진영도 타격받았음을 의미했다. 경종은 화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복수허용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왕이 元甫 위수어를 近臣 知御廚事로 삼은 일⁵²⁾은 왕의 독살 우려와 정국의 혼미를 시사한다. 대광 내의령 최지몽이 경종 5년에 客星이 帝座를 범한다며 숙위를 강화해 대비하기를 요청했으며, 이윽고 王承 등이 반역을 꾀하다가 살해당했다.⁵³⁾ 복수를 당한 자들이 반격해 경종까지 제거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경종은 6년(981) 6월에 아파, 7월에 사촌 동생인 開寧君 治(성종)에게

48) 『고려사』 권93, 최승로전.

49) 『고려사』 권2, 경종 원년 11월조; 『고려사』 권93, 최승로전. 경종이 權豪에 專任하여 해가 종친에 미치니 咎徵이 먼저 나타났으며 후에 깨달았지만 책임이 돌아갈 곳이 없었다고 했다.

50) 『고려사』 권2, 경종 원년 11월조.

51) 『고려사』 권2, 경종 원년 11월; 『고려사』 권93, 최승로전.

52) 『고려사』 권2, 경종 원년 11월.

53) 『고려사』 권2, 경종 5년; 『고려사』 권92, 최지몽전.

內禪하고 세상을 떴다고 하는데,⁵⁴⁾ 독살공포와 반역기도에 시달린 끝에 2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 최승로는 태조의 아들 찬안군과 鎭州郎君이 경종 때 權臣에게 해를 입어 원혼이 되었다면서, 경종이 永年을 보장받지 못했음은 이禍로 인한 것이 많았다고 회고했다.⁵⁵⁾ 이는 경종이 정적의 반격을 받아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종 때는 광종 때 숙청대상이었다가 살아남은 공신·호족 계열이 황주에 연고가 있는 명복공부인 황보씨와 손녀 현애왕후 황보씨 자매를 중심으로 결집해 정권을 장악했다. 이들은 西都 우대정책을 폈으리라 여겨지지만, 정국이 혼돈에 빠진 탓에 제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舊臣과 그 자제들은 복수하다가 반격 받아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황주세력 내지 서경세력의 복원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으며, 구심점인 경종을 잃었다. 광종 때 활약한 신진관료·문신관료들은 경종 때 숙청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건재해 등용되었다.⁵⁶⁾

왕실과 조정은 경종의 후계자를 정해야 했다. 후보자로 경종의 아들인 2살의 목종, 태조의 아들인 王郁(안종), 태조의 아들 王旭(대종)의 아들이자 경종의 사촌인 성종 형제, 태조의 손자이자 효은태자의 아들인 王琳·王禎 등이 있었다.⁵⁷⁾ 경종이 유서로 성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되어 있지만, 막후 절충의 결과로 여겨진다.

목종의 모친 현애왕후는 권력욕이 강해 어린 아들을 왕위에 앉혀 섭

54) 『고려사』 권2, 경종 6년 6월·7월.

55) 『고려사』 권93, 최승로전. 경종이 말년에 정무를 기피하고 色荒·오락에 빠졌다고 언급되었는데, 이것도 정변으로 인한 경종의 有故 상태를 시사한다.

56) 김당택, 1981 「최승로의 상서문에 보이는 광종대의 ‘후생’과 경종원년 전시과」 『고려광종연구』, 일조각 ; 전기웅, 1985 「고려 경종대의 정치구조와 시정전시과의 성립기반」 『진단학보』 59.

57) 효은태자의 아들인 王琳과 王禎은 부친이 살해당할 때 도망해 민간에서 糊口하고 있었으니(『고려사』 권90, 종실전1, 효은태자), 이들이 왕위 계승자가 되기는 어려웠다.

정하기를 원했을 터이지만, 다른 세력이 목종의 나이를 이유로 반대했을 것이다. 옛 신라 계열 사람들은 후술하듯이 경상도에 연고가 있는 王郁(안중)을 선호했을 터인데 황주계열이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타협책으로 22세의 성종이 선택되었다고 여겨진다. 성종은 조모 황주원부인 황보씨의 손에서 자라 황주 계열의 일원이었으면서, 유학을 좋아해 경주 최량을 師友로 두어 경주세력과도 친밀했다.⁵⁸⁾ 성종이 경종의 아들인 목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르는 데에는 최량, 최승로 등 경주세력 및 그들과 친밀한 왕용 등 온건 귀화 문사의 힘이 컸다고 판단된다.⁵⁹⁾

성종은 유학을 좋아하는 데다가 즉위과정에서 유자인 경주 최승로·최량 등의 도움을 받았고,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에 유학의 논리가 필요해 유신들을 중용했다. 최승로의 상소문을 채용해 전반기에 유교적 체제와 의례를 정비하는 데 힘을 기울인 반면 6년 10월에 전통행사인 개경·서경 팔관회를 정지했으며 이 무렵 연등회도 폐지했다.⁶⁰⁾

성종은 최승로의 경주 계열로 대표되는 유자들을 중용한 반면 승려를 가장해 현애왕후와 사통한 외족 김치양을 불륜죄목으로 귀양보냈고, 어린 조카 목종을 궁중에서 키웠다.⁶¹⁾ 이는 누이 현애왕후가 어린 아들 목종을 끼고 세력을 키워 왕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목종과 현애왕후가 성종의 왕권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성종대 정국은 전반기에는 경주 최승로·최량, 영암 최지몽, 영광 김심언 등 신라 6두품계 유학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나주계 포함)이 주

58) 『고려사』 권88, 후비전 태조 신정태후 황보씨; 『고려사』 권93, 최량전.

59) 최승로와 중국에서 귀화한 왕용이 친밀한 관계임은 지곡사 진관선사 비문에 드러난다.

60) 『고려사』 권93, 최승로전; 『고려사』 권3, 성종세가; 『고려사』 권94, 서희전, 이지백 발언. 팔관회의 雜技는 성종 즉위년 11월에 폐지되었다.

61) 『고려사』 권127, 김치양전; 『고려사』 권3, 목종세가 서문.

도한 반면 후반기에는 이천 서희, 본관미상 이지백, 청주 李謙宜, 장단 한 언공, 백주 조지린 등 近畿地方 개국공신 혹은 호족 계열의 진통과 세력이 주도했으며, 후자가 목종·현종대 정치적 주류를 이룬다는 연구가 있다.⁶²⁾ 후자 소속을 近畿地方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쓴 점이 문제인데, 그들의 출신지는 북부·중부지역에 해당한다. 성종 후반기 이래 북부·중부지역 출신이 주도권을 장악해 간 것은 분명한데 이는 성종이 왕권을 강화하고 현애왕후가 세력을 키워 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성종의 유교에 치우친 정책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변화했는데, 최승로가 8년 5월에 세상을 뜨면서 본격화했다. 하지만 7년 12월에 불교법에 의거해 정월, 5월, 9월을 三長月로 삼아 도살을 금지한 데에 이미 나타났었다. 성종은 8년 12월에, 자신이 어려서 여인 부모를 매번 추모하고자 해 왔으며, 당 태종의 예에 따라 태조와 부모의 忌齋 때 焚修해 명복을 빌게 했고, 도살을 금지하고 肉膳을 중단했다.⁶³⁾ 최승로에 억눌려 부모의 명복조차 불교식으로 빌지 못해 온 데 대한 왕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는 그가 왕실과 자신의 정체성에 관심을 돌렸음을 의미하는데 후계자 문제와 맞물려 있었다.

성종은 3명의 배우자를 두었지만 딸 둘을 얻은 후 더 이상 자녀를 가지지 못했으니,⁶⁴⁾ 이는 성종의 건강 혹은 성적 능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아들 가지기가 어려움을 인식한 성종은 왕위계승 과정에서 빛을 진 조카 誦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31세인 9년 12월에, 崇德宮의 嫡男인 誦을 猶子라 천명하면서 자신의 잠저시 칭호 開寧君에 책봉

62) 이기백, 1990 『고려귀족사회의 형성』, 일조각, 34~49쪽. 후자에도 유학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점이 있다. 근기계를 비유학자로 볼 수 없다는 구산우의 견해가 참고된다. 2003 「고려 성종대 정치세력의 성격과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14, 104~120쪽.

63) 『고려사』 권3, 성종 7년 12월·8년 5월·8년 12월.

64) 두 딸은 훗날 현종의 배우가 된다. 『고려사』 권88, 후비전 현종 원정왕후·원화왕후.

하고 조정에서 政敎를 도우라고 했다.⁶⁵⁾ 이는 태자 책봉에 준하는 조치로 목종을 후계자로 선포한 것이니, 권력의 추는 서서히 개녕군 誦과 그 어머니 헌애왕후(성종)로 옮겨가고 있었다.

성종은 11년 7월에 숙부인 王郁(안중)을 경종의 왕비인 헌정왕후(성종 누이)와 사통했다고 하여 泗水縣으로 유배했다.⁶⁶⁾ 왕옥은 文辭에 뛰어나고 풍수에 정통했으니, 추종자들이 꽤 되었을 터였다. 성종은 왕옥을 차기 국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왕권과 후계자 목종의 안전을 위해 불륜을 핑계로 왕옥을 유배했다고 여겨진다. 왕옥이 압송관에게 준 송별시⁶⁷⁾에는 성종에 대한 원망과 사수현에서 생을 마감하리라는 예감이 담겨 있다. 왕옥이 유배됨으로써 개녕군 즉 목종의 왕위계승의 걸림돌은 사라졌다. 왕옥이 유배되는 날 충격을 받은 헌정왕후는 대량원군(현종)을 조산하고 세상을 떠났다. 현종 때 현화사 비문⁶⁸⁾에는 효숙태후(헌정왕후)가 성종 12년 3월에 아파서 죽었으며, 왕옥은 그 해 겨울에 거란군을 막기 위해 출정하는 성종의 배려로 泗水에 피난 보내졌다고 조작되었다.

성종은 유교를 존중했지만 자신을 낳아준 북부지역의 전통중시 정서를 품어 오다가 후반에 드러낸 것인데 서경 중시로 연결되었다. 성종은 9년 9월에 교서를 내려, 태조가 春秋마다 서경에 행차해 齋祭를 지내고 후계자들이 遵行하거나 近臣을 파견했는데, 자신도 매년 준수하고자 해왔다면서, 遼城(西都)에 나아가 祖禰의 舊規를 행하고 新습을 선포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10월에는 서도에 행차해, 虞舜이 泰嶽을 순행하자 제후

65) 『고려사』 권3, 성종 9년 12월.

66) 『고려사』 권3, 성종 11년 7월 ; 『고려사』 권88, 후비전1, 경종 헌정왕후 ; 『고려사』 권90, 종실전 태조, 안중 郁.

67) “나그네가 우리(감옥)에서 원승이가 쇠사슬에 묶인 듯하다고 스스로 한탄하네… 聖主의 一言은 응당 고치지 않으리니, 끝내 늙은이로 하여금 물가에서 고기 잡도록 할 수 있나네.”

68) 허홍식 편, 『한국금석전문』(중세 상), 현화사비. 본문은 周佇, 음기는 채충순이 지었다.

가 몰려들고 唐皇이 洛陽에 행차하자 四海가 소생한 예를 들면서, 10년 동안 西巡하지 못하다가 祖先의 궤적과 時습에 따라 행차하니 백성이 환호했다면서 中興의 운수를 경축하려 한다고 했다. 서경에 순력하지 못해 온 데 대해 반성하고 행차해 환대를 받았던 것인데, 10년 10월에도 경유지 父老의 환호를 들으며 서도에 행차했다.⁶⁹⁾

그런데 거란군의 침략은 고려, 특히 서경에 위협을 안겼다. 성종은 12년 윤10월에 서경에 행차하더니 安北府에 나아가고자 하다가 거란군이 蓬山郡을 격파하자 서경으로 돌아왔다.⁷⁰⁾ 群臣 회의에서 흑자는 항복하자고 했고 흑자는 서경 이북의 땅을 배어주어 황주~岫嶺을 경계로 삼자고 했다. 성종이 割地論을 따르려 하자 서희가 반대하고 싸우기를 주장했다. 이지백도 할지론을 반대하면서 先王의 연등·팔관·仙郎 등의 일을 다시 행하여 국가를 보위하기를 촉구했는데, 왕의 華風 사모를 國民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한 것이었다고 한다. 서희는 자원해 소손녕과 담판했다. 소손녕이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으니 고구려 땅은 거란 소유라고 말했다. 서희는, 고려는 바로 고구려의 舊역서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했다면서 요동지역까지도 고려의 舊地라 반박하고, 고려가 여진이 盜據하고 있는 압록강 内外의 舊地를 획득하면 거란에 조빙하겠다고 하여 화해가 성립했다.⁷¹⁾

성종은 최전방까지 나아가려 할 정도로 방어에 적극적이었지만 할지론이 대세가 되자 따르려다가 할지 반대론을 얻자 이를 지지했다. 할지론이 시행되었다면 태조 이래의 서경 경영은 물거품이 되고 서경을 근원지

69) 『고려사』 권3, 성종 9년 9월·9년 10월·10년 10월. 성종은 10년 10월에 압록강 밖 여진을 축출해 백두산 밖에 거주하도록 조치했다.

70) 『고려사』 권3, 성종 12년 8월·10월·윤10월.

71)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윤10월; 『고려사』 권94, 서희전. 서희는 청천강~압록강에 강동 6주를 건설했다. 그는 압록강 밖까지 수복하고자 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

로 생각하는 고려의 정체성은 흔들렸을 터인데 서희 등이 성종을 뒷받침해 할지론을 굴복시키면서 西都는 살아났다. 이는 성종 후반기 서도중시 정책과 맞물린 것이었는데 할지론 폐기에는 현애왕후 세력의 영향력도 작용했을 것이다.

항복론과 할지론은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역 儒者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희는 유자이지만 중부지역인 이천 출신으로서 전통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북부지역 사람들과 정서를 공유했다. 고구려 계승과 평양을 중시한 서희가 성종 후반기에 국정을 주도하면서 서도중시정책은 지속될 수 있었다. 반면 성종 14년 4월에 경주 崔亮이 세상을 뜨고, 15년 7월에 王郁이 사수현에서 死하면서⁷²⁾ 경주 내지 경상도 세력은 약화되어 갔다.

성종은 14년에 西都를 西京留守라 칭했다.⁷³⁾ 3품 이상의 知西京留守 事 1인, 4품 이상의 副留守 1인, 6품 이상의 判官 2인, 7품 이상의 司錄參軍事 2인과 掌書記 1인, 8품 이상의 法曹 1인을 두었다.⁷⁴⁾ ‘서도(서경)’는 황도(개경)와 대등한 관계였는데, ‘서경유수’는 개경을 보조하는 陪都인 유수경으로 격하되었음을 의미했다. 개경정부와 대등한 廊官·衙官·병부령 등의 관부도 개경정부와 격이 다른 知留守事·副留守 등으로 변화했다. 성종이 서경을 중시하는 경향을 띠어 가는 상황에서 취한 조치라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중앙집권 체제의 정비⁷⁵⁾와 맞물린 정책으로 바

72) 『고려사』 권3, 성종 14년 4월·15년 7월; 『고려사』 권90, 종실전 1, 安宗 郁. 王郁의 아들은 2살 때 사수로 내려가 5살 때 부친을 장사지내고 6살인 성종 16년 2월에 還京했다. 이가 대량원군(현종)이니 王郁도 대량원군으로 불렸을 것이다.

73) 『고려사』 권58, 지리지 3, 서경유수관. 성종이 9년 9월에 내린 교서에 ‘西都留守官’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이로 보아 서도유수가 9년 9월 이전에, 경주가 동경유수로 되는 성종 6년에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근화(1987b)는 西京鎭將이 성종 초에 留守官으로 전환했다고 보았다.

74) 『고려사』 권77, 백관지 2, 서경유수관.

75) 성종 14년에 중앙과 지방의 제도가 정비되었다. 성종이 9년 7월에 김심언의 封事에 따라 서도에 分司司憲 즉 分司御史를 둔 것(『고려사』 권93, 김심언전)도 중앙집

라보아야 한다. 성종은 서경 중시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광종의 정책을 이어 개경 중심 정책을 고수했다. 성종은 9년 10월 교서에서 서도를 ‘낙양’에 비유했는데, 이는 개경을 ‘장안’에 비유한 것을 의미하니 개경의 우위를 드러낸 것이었다.

성종의 서경정책은 동경정책과 비교해 보아야만 제대로 조명할 수 있다. 성종은 전반기에 권력의 운영을 경주 계열에 기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호위병도 경주 사람을 중심으로 채웠다.⁷⁶⁾ 대도독부였던 경주가 성종 6년에 ‘東京留守’로 승격된 것⁷⁷⁾은 경주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한 결과였다. 이로써 고려는 개경, 서경, 동경의 3경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성종은 14년에 東京留守를 ‘留守使’로 칭하여 嶺東道에 속하게 하고, 3품 이상의 留守使 1인, 4품 이상의 副留守 1인 등을 두었다.⁷⁸⁾ ‘留守使’는 ‘留守’보다 격이 낮았다.⁷⁹⁾ 성종은 서경의 위상을 개경에 비해 격하시켰지만 동경보다 높게 유지했던 것이다.

성종은 태조가 경주를 위로하러 방문한 이래 처음으로 16년 8월에 동경에 행차했다. 이례적인 이 행차는 서경중시에 대한 동경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종은 아파서 돌아와 10월에 개녕군 誦을

권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76) 『고려사』 권3, 성종 9년 10월조 ; 하현강, 1967 앞의 논문.

77) 『고려사』 권57, 지리지 2, 동경유수관.

78) 『고려사』 권57, 지리지2, 동경유수관 ; 『고려사』 권77, 백관지 2, 동경유수관. 그 외에 6품 이상 판관, 7품 이상 司錄叅軍事와 掌書記, 8품 이상 法曹, 9품의 醫師와 文師 각 1인이 두어졌다.

79) 留守官(留守 포함)이 留守使보다 격이 높음은 묘청정변 직후 西京留守官이 西京留守使로 격하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우두머리가 서경은 독립적인 知留守事인 반면 동경은 영동도에 속한 留守使라는 점, 판관과 사록참군사의 수가 서경은 각각 2인인 반면 동경은 각각 1인이라는 점이 다르다. 성종 때 知事와 使는 그 위상이 별 차이가 없었다고 여겨지지만, 당시 知西京留守事는 京職 혹은 겸직, 東京留守使는 專任職이거나 영동도에 속한 것으로 보아 外職인 듯하다. 서경관계에 의사와 문사가 보이지 않음은 태조 때부터 서경에 학관과 醫業이 두어졌기 때문이었다.

불러 傳位하고 내친왕사로 옮겨 38세로 세상을 떴다.⁸⁰⁾

IV. 천추태후 섭정과 목종 12년 정변

목종은 즉위하자 모후 황보씨를 應天啓聖靜德王太后로 높였다. 왕은 18세로 성년이었지만 응천태후(추증 헌애태후)가 천추궁(천추전)에서 섭정해 천추태후라 불려졌으므로⁸¹⁾ 목종 때 행해진 일들은 대개 천추태후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었다. 목종은 김치양을 싫어했지만 천추태후는 외족 연인인 김치양을 중용했으니 천추태후 세력은 김치양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洞州 김치양은 閤門通事舍人을 거쳐 우복야 兼三司事에 올라 정권을 장악했다. 그는 인사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親黨을 포열시켰는데, 삼사직 겸임은 재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신주 출신으로 여겨지는 강조도 중추사 우상시를 거쳐 최정에 군대 지휘자인 서북면 도순검사에 임명된 점으로 보아 천추태후 내지 목종의 신임이 두터웠다고 판단된다.⁸²⁾

천추궁·銀臺·宣徽院의 관료, 목종 12년 정변 때 ‘內’에서 직속한 知銀臺事 李周禎·劉忠正과 閤門舍人 庾行簡, 殿門을 지키는 親從將軍 庾方 등⁸³⁾이 천추태후 세력(목종 측근 포함)의 주요 구성원으로 파악된다. 長

80) 『고려사』 권3, 성종 16년 8월·9월·10월. 성종은 흥례부에 갔다가 병들었다.
81) 『고려사』 권88, 후비전 1, 헌애왕태후 황보씨. 김치양의 西宅이 崇德이었으니(『고려사』 권127, 이자결전), 천추태후가 자신의 崇德宮을 김치양에게 준 듯한데, 그녀는 훗날 승덕궁에서 薨했다.
82) 『고려사』 권127, 김치양·강조전 참조. 목종은 효심이 지극해 태후에게 복종했으므로 목종의 측근도 대개 천추태후세력으로 파악된다.

淵 사람인 문인위는 오랫동안 千秋宮使로 일한 庾行簡은 목종이 총애하는 동성애 상대자로 閤門舍人에 驟遷했는데, 유행간에게 물은 후 왕명을 선포하니, 近侍들이 왕처럼 받들었다. 위위소경·공부시랑 庾稟廉도 아들 유행간을 거들었다. 知銀臺事 左司郎中 劉忠正은 발해 사람인데 목종의 총애를 받았고, 宣徽判官 황보유의는 공신 자손이었다.⁸⁴⁾ 유행간은 평주, 황보유의는 황주 출신으로 여겨지고 있다.⁸⁵⁾ 洞州 토산현 사람인 李周禎·李周憲·安紹光이 있는데, 천추태후의 친숙인 이주정은 이주현의 근친으로 판단된다. 知銀臺事·공부시랑 이주정은 김치양과 친밀했다. 小吏에서 일어난 이주현은 內史舍人으로서 三司의 직무를 겸했으니, 兼三司事 김치양을 도와 재정을 담당했다. 안소광은 누대 將帥 집안 출신인데 목종이 翊戴功을 표창해 숙위를 맡겨 寵待했다. 白州 은천현 사람으로 吏幹이 있는 趙之遴은 이부시랑 지은대사에 임명되었다. 庾方은 평주 유금필의 손자였다.⁸⁶⁾ 이들이 천추태후 세력의 핵심이었는데, 재정권을 중시해 장악했다.

천추태후 세력에서 황주·서경 출신은 황보유의밖에 확인되지 않으니, 이는 광종 때 숙청으로 황주 내지 서경 세력이 몰락했음을 반증한다.⁸⁷⁾ 이런 연유로 천추태후는 외척 고을인 동주의 김치양·이주정·이

83) 『고려사』 권127, 김치양전; 『고려사절요』 권2, 목종 12년 정월; 『고려사』 권94, 황보유의전. 은대와 선휘원은 천추태후 내지 목종이 친위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변태섭(1976 「고려의 중추원」 『진단학보』 41)에 따르면, 은대는 進奏·直宿, 선휘원은 內僚·儀式을 관장했다.

84) 『고려사』 권127, 김치양전; 『고려사』 권123, 유행간전; 『고려사』 권5, 현종 18년 6월조; 『고려사』 권94, 황보유의전. 유충정도 북부세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85) 이수건, 앞의 책, 160~161쪽

86) 『고려사』 권127, 강조전; 『고려사』 권94, 이주현·안소광·조지린전; 『씨족원류』 平山庾氏.

87) 이태진은 목종대에 천추태후 중심의 서경세력이 우세한 가운데, 서경세력 중심의 왕후족 계열과 유교적 관인형이 병존했다고 파악했다(앞의 논문). 김용곤은 목종대 정국을 김치양일파와 유교적 관인층의 대립으로 파악했다. 1986 「고려 현종대의 문묘종사에 대하여」 『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주현·안소광 등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해야 했다. 광종 때 숙청에서 살아남은 평주 사람들도 힘을 보탰으니 평주세력은 옛적에 워낙 강력했던 터라 그 명맥이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천추태후 세력은 임진강 이북의 북부지역 출신을 주축으로 하였으니, 이는 서경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나타났다.

목종 원년 7월에 ‘서경’이 ‘鎬京’으로 바뀌었는데, ‘서경유수’가 ‘호경’으로 바뀐 것이었다.⁸⁸⁾ 이는 호경이 유수경이 아니라 개경과 대등한 도읍이 된 것을 의미하니 관부도 유수관에서 태조 때의 廊官 등으로 환원되었을 것이다. ‘호경’은 周의 수도 명칭에서 유래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왕이 鎬京을 건설하고 상(은)을 정벌해 주의 시대를 열었고, 주공이 洛邑에 副都로서 東都를 건설했다. 호경은 ‘宗周’로, 낙읍은 ‘成周’로 불렸다. 호경의 주가 멸망하자 주왕실은 낙읍으로 옮겨 동주를 열었지만 춘추전국이 도래했다. 목종 내지 천추태후가 서경을 호경이라 개칭한 것은 주의 근원지가 호경이었듯이 고려의 근원지도 서경이라는 점이 강조된 것이고, 개경은 낙읍(낙양)에 비유된 것이었다. 그러하니 당연히 호경 중시정책이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 호경(서경)이 낙읍에 비견되는 개경보다 우월하다는 인식, 호경에 자주 행차하거나 천도해야 중흥할 수 있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 그래서 목종은 2년 10월, 7년 11월, 10년 10월, 11년 10월에 모두 4차례 호경에 행차했으며,⁸⁹⁾ 그 때마다 齋祭를 지냈고 종종 神祇에 勳號를 더했다. 목종의 호경 행차는 성종 후반기의 경향을 계승해 전통신앙 중시차원에서 행해졌으니 천추태후 세력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인데, 그 빈도가 재위기간의 비율로 보면 태조의 그것과 거의 필적할 정도로 높다.

그런데 목종 치세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후계문제로 정국이 흔들려 갔

88) 『고려사』 권3, 목종 원년 7월 ; 『고려사』 권58, 지리지3, 서경유수관.

89) 『고려사』 권3, 목종세가.

다. 목종은 선정왕후 劉氏(홍덕원군 딸) 및 궁인 김씨와 혼인했으며서도 자녀를 갖지 못했다.⁹⁰⁾ 천추태후는 김치양과 사통해 목종 6년에 아들을 낳자 왕위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경쟁자인 12살의 대량원군 詢을 꾀박해 승려로 만들고 개경 송교사에 안치했다. 대량원군은 목종 9년에 삼각산(북한산) 신혈사로 옮겨졌는데 천추태후가 누차 사람을 보내 살해를 시도했지만 승려들의 보호로 벗어났다.⁹¹⁾ 천추태후의 섭정 및 사통해 낳은 아들의 왕위계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량원군을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천추태후 세력과 대량원군 세력의 갈등은 깊어갔다.

결국, 목종 12년 정월에 정변이 발생했다.⁹²⁾ 임신일에 왕이 詳政殿에서 觀燈하고 있었는데, 천추태후가 거처하고 섭정하는 천추전이 大府油庫의 화재로 불탔다.⁹³⁾ 이 화재 용의자는 ①김치양 설과 ②宰臣 설이 있다. 전자는 김치양정변 설(①a) 및 김치양정변과 그에 반대한 신라계정변 설(①b), 후자는 재신정변 설(②a)과 연결되었다.⁹⁴⁾ 어느 견해도 간에 강조의 정변은 중간에 끼여든 것이었다.

대부유교의 화재가 계획적인 방화였고 그것을 기점으로 정변이 발생

90) 『고려사』 권88, 후비전, 목종 선정왕후 劉氏·궁인 김씨. 광종 이래의 근친혼 때문인지도 모른다.
 91) 『고려사』 권3, 목종 6년; 『고려사』 권4, 현종세가 서문.
 92) 정변의 진행과정은 『고려사절요』 권2, 목종 12년 정월 참조. 大定門과 大初門이 함께 나오는데 동일한 王居 정문으로, 대초문이 훗날 泰定門(大定門)으로 바뀐다(『고려사』 권16, 인종 16년 5월). 영추문은 궁성 서문이었다.
 93) 목종 때 연등이 부활했음을 보여주는데, 팔관도 부활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목종 때 전통 중시풍조를 엿볼 수 있다. 大府油庫는 東池 부근에 위치한 기름창고로, 천추궁은 궁성의 동벽과 황성 사이에 있는 왕실 여인들의 거처로 여겨지는데, 천추궁은 우춘궁의 전신이 아닌가 싶다.
 94) ① 및 ①a는 池內宏(1919 「高麗穆宗朝の禍亂」 『동양학보』 9)과 이태진(앞의 논문), ① 및 ①b는 荻山秀雄(1922 「高麗顯宗の即位に關する高麗史の曲筆を論ず」 『동양학보』 12), ② 및 ②a는 김당택(1980 「고려목종 12년의 정변에 대한 일고」 『한국학보』 18)의 견해이다. 荻山秀雄은 김치양이 방화해 정변을 일으키자 신라계가 반발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고 보았다. 김당택은 목종 12년 정변을 宰臣과 김치양과의 대결로 파악했다.

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대부유고와 천추진이 불타버린 충격으로 목종이 병이 나서 정사를 듣지 않았다는 기록도 신빙하기 어렵다. 목종이 궁궐을 쫓겨나 임진강을 건너 충주로 향할 때 전혀 병자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그가 현종추대세력에 의해 적성현에서 살해당함은 그의 건강을 반증한다. 목종이 아파서 내전에 틀어박혔다는 것은 유폐상태를 의미한다고 보고 싶다.⁹⁵⁾

목종이 내전에 틀어박힌 상황에서, 銀臺에서 直宿한 사람은 이부상서 참지정사 劉璿, 이부시랑 중추원사 崔沆, 급사중 중추원부사 채충순 등이었다. 內에서 직숙한 사람은 知銀臺事 공부시랑 李周禎, 우승선 전중시어사 李作仁, 嬖臣 知銀臺事 左司郎中 劉忠正과 閣門舍人 庾行簡 등이었다. 殿門 가까이 常直한 사람은 親從將軍 庾方, 중랑장 柳宗·卓思政·河拱辰 등이었다. 호부시랑 최사위는 大定門(大初門의 오류) 別監으로서 諸宮門을 폐쇄하여 계엄하고 오직 長春門과 大定門(大初門)을 열었다.

侍御史 최사위가, 복야 김치양이 呂后와 모의해 漢儲를 해치려 하자 檢衛를 奏差해 위기를 면하도록 하고 大寶에 오르도록 하였다고 한다.⁹⁶⁾ 호부시랑 최사위는 시어사 내지 대초문별감으로서 檢衛를 파견해, 김치양과 여후(천추태후 비유)가 漢儲(대량원군 비유)를 해치려는 것을 막았으며, 궁문을 폐쇄해 대량원군을 보위에 등극시킨 인물이었던 것이다. 궁성을 폐쇄한 대량원군파는 목종이 중병으로 위독하고 김치양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여겨지는데, 최사위가 救命道場을 개설한 일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최사위는 목종이 폐위되기 전에 형부상서에 올랐으니,⁹⁷⁾ 형벌권을 장악함으로써 정변의 성공에 박차를 가하고 천

95) 목종은 강조의 강요에도 강조 군대가 영추문을 통해 난입하고 경호무반 탁사정과 하공진 등이 강조에게 달아나서야 크게 울면서 궁성을 나왔으니, 자발적으로 양위할 마음이 없었다.

96) 최사위 묘지명. 묘지명은 김용선 편, 『고려묘지명집성』 참조.

97) 『고려사』 권94, 최사위전.

추태후 세력의 숙청을 주도할 수 있었다.

최사위의 궁문 폐쇄로 목종은 궁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고, 천추태후도 장생전에 들어왔다. 목종이 머문 내전 내지 침전이 장생전이었을 것이다. 이주정·이작인·유충정·유행간 등 ‘內’ 즉 내전에서 직속한 사람들은 목종의 측근이었는데 이작인을 제외하고 천추태후 세력으로 여겨진다. 전문에 직속한 친위무반들은 누구편인지 불확실하다.⁹⁸⁾ 은대에 직속한 재추인 채충순과 최항이 대량원군을 후계자로 迎立한다는 교서를 목종으로부터 받아냈는데, 그들은 대량원군 세력으로 여겨진다. 김치양이 역모를 꾀했다는 증거는 유충정이 목종에게 올렸다는 封書밖에 없다. 김치양이 목종을 해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무력을 동원한 일도 없었다. 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은 최사위·채충순·최항 등 대량원군 세력이었다.

채충순과 최항 등은 삼각산 신혈사의 대량원군을 데려오는 인물로 문반인 宣徽判官 황보유의와 무반인 낭장 文演을 선택해 보냈으며, 개성부 參軍 김연경에게 군졸 100명을 거느리고 郊迎하도록 했다. 황보유의는 천추태후의 친족으로 보이지만 김치양의 아들을 목종의 후계자로 삼는 데에 불만을 품다가, 그의 집안을 이용해 대량원군 翁瓘 당위성의 홍보를 노린 채충순 측의 회유에 넘어갔다고 여겨진다. 황보유의에게는 천추태후와 헌정왕후 자매는 똑같은 친척관계이지만,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낳은 아들보다 헌정왕후와 王郁(태조의 아들)이 낳은 대량원군이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었다. 게다가 대세가 대량원군세력으로 기운 상황이었다. 황보유의의 배신은 천추태후 세력에 타격을 입혔을 것이다. 채충순 등이 황

98) 晋州 하공진은 대량원군파일 가능성이 있다. 李作仁은 경주 최항의 사위인 李作忠(『고려사』 권93, 최항전)의 근친으로 보인다. 전중시어사인 그는 시어사 최사위에 복종해 대량원군에 가담했을 것이다. 형부상서 陳頤은 內 직속에 나중에 참여했으므로 천추태후파로 보기 어렵다.

보유익과 낭장 文演 등 10인을 신혈사에 보내 대량원군을 맞이하도록 한 것을 김치양은 알았지만 어찌할 수 없어 수일 동안 망설였다고 되어 있다.⁹⁹⁾ 김치양이 반란을 도모했다면 이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시일을 보내 지는 않았을 것이다.

목종은 李周禎이 김치양에 붙은 것을 알고 서북면 都巡檢副使에 임시로 임명해 그 날 출발시키고 서북면 순검사 康兆를 불러 入衛하도록 하였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강조가 洞州에 이르러, 역모를 도모한 태후와 김치양이 강조의 반발을 염려해 왕명을 사칭하여 불러들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왕이 죽었다고 생각해 돌아갔다고 되어 있다.

목종이 김치양을 몰아내려고 했다면 천추태후의 친속으로 김치양과 인 이주정을 정예부대가 주둔하는 서북면에 도순검부사로 즉시 파견하고 도순검사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들인 일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게다가 강조는 처음에 入衛 명령을 받고도 군대를 거느리지 않고 개경으로 향했으니 더욱 그러하다. 목종이 김치양과 인 이주정을 서북면 도순검부사로 삼아 즉시 파견한 것은 목종이 천추태후 내지 김치양 편에 섰음을 시사한다. 정변이 발생하자 목종은 즉시 이주정을 서북면에 파견해 강조에게 入衛 명령을 전달하고 강조를 도와 군대를 거느리고 오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을 포착한 대량원군과 강조를 제거하기 위해 入衛 명령을 소환 명령으로 변조하니 강조가 군대를 이끌지 않고 개경으로 향했다고 여겨진다. 태후가 강조의 남하를 꺼려 內臣에게 罍巔을 차단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절령전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부족하다.

서경 본영으로 돌아온 강조는 도순검부사 김현운과 함께 정예군대 5천을 거느리고 개경을 향해 남하하다가 목종이 살아 있음을 알게 되자 목종 폐위와 대량원군 응립을 결의하고 개경을 접수했다. 강조는 천추태

99) 『고려사』 권127, 김치양전.

후 세력이었다가 대량원군 편에 섰는데, 김치양 아들의 왕위후계설에 반감을 품었기 때문이라 여겨지지만 권력욕도 작용했을 것이다. 채충순이 파견한 황보유의·문연과 강조가 파견한 分司監察御史 김응인이 만나 삼각산 신혈사에서 대량원군을 맞이해 개경으로 돌아왔다. 강조는 대량원군 즉 현종을 국왕으로 즉위시키고 목종을 폐위했으며, 병사들을 파견해 김치양과 그 어린 아들 및 유행간 등 7인을 살해하고 그 당여 및 태후 친속 이주정 등 30여 명을 유배했다.¹⁰⁰⁾ 庾稟廉을 비롯한 143인도 처벌받았다.¹⁰¹⁾ 절의를 지킨 천추태후파는 180명 정도였던 셈인데, 국문도 없이 살해당하거나 처벌받았다.

채충순, 최항, 최사위 등이 주도하고 황보유의, 문연, 김연경 등이 협조한 대량원군파의 정변은 강조의 개입이라는 변수를 만났지만 현종의 즉위를 도출해 성공을 거두었다. 권력은 강조, 김현운 등 서북면의 군대를 동원한 편파 채충순, 최항, 최사위, 황보유의 등 대량원군파가 분할하고 전자가 주도했지만, 거란 제침으로 전자가 몰락하면서 후자가 차지했다.

최사위 묘지명은 천추태후를 呂后에, 대량원군을 漢儲에 비유했다. 천추태후와 목종은 한의 여후(고조의 황후)와 혜제에, 김치양의 아들은 한의 출신불명의 소제에, 대량원군 즉 현종은 漢儲 즉 문제에 비유되었던 것이다.¹⁰²⁾ 대량원군 세력은 천추태후 세력을 몰아내는 것을 한에서 여후

100) 『고려사』 권127, 김치양·강조전. 천추궁 宮僚가 많이 연좌되어 誅竄되었는데 천추궁사 문인위는 강조의 비호로 처벌을 면했다.

101) 현종이 18년 6월에, 前 공부시랑 庾稟廉 등 143인이 諂曲奸邪의 죄를 범했으나 敍用하라고 한 데(『고려사』 권5)에서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천추태후 세력의 보조역으로 보인다.

102) 呂太后와 천추태후는 아들을 무력화해 섭정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여태후는 아들 혜제가 후사 없이 요절하자 어떤 남아를 혜제의 후계자(소제)로 둔갑시켜 여씨 일족의 친하를 만들었다. 여후가 세상을 뜨자 황족이 여씨 일족을 몰아내 고조의 아들인 代王 유향을 옹립했으니 명군인 문제였다.

세력을 몰아내 劉氏 황조를 중흥한 것처럼 인식했던 것이니, 그들이王氏 왕조를 중흥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거사했음을 엿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박, 석, 김이 돌아가면서 왕이 되었다. 태조 왕건의 증조모는 당 숙종과 결혼했다고 하는데¹⁰³⁾ 신빙성이 없으니, 왕건의 선대는 모계로 이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에 의거하면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아들도 태조의 외증손이므로 고려의 왕위를 이을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과거가 도입되고 유학이 퍼지면서 남계의 왕위계승 사고방식이 지배층에 파고들었다.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전통사상에 입각해 둘의 아들을 왕위 후계로 하려 하자 유교에 물든 많은 관료들이 반발하고 천추태후 세력에서도 이탈자가 생겨났다. 이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대량원군 세력이 정변을 일으켜 18살의 대량원군을 옹립했던 것이다.

V. 현종 때 정치세력과 서경

천추태후 세력을 몰아낸 정변의 주역은 중간에 끼여든 강조 군대를 제외하면 채충순, 최항, 최사위, 윤징고 등이었다. 채충순은 송 강남 泉州 사람으로 광종 때 귀화하고 목종 원년에 죽은 문사 蔡仁範의 아들이었다.¹⁰⁴⁾ 경주 崔彦擣의 손자로 장원급제한 최항은 최승로와 달리 팔관회 부활과 황룡사탑 수리를 주도할 정도로 불교와 전통신앙을 중시했다. 채

103) 『고려사』 세가 맨 앞 「高麗世系」.

104) 채인범 묘지명에 따르면 채인범이 현종 15년 11월에 이장될 때 아들은 內史侍郎同 內史門下平章事 監修國史를 떠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인물은 현종 13년 4월에 내사시랑평장사 겸 서경유수에 임명되고, 7월에 內史侍郎同內史門下平章事로서 현화사비 음기를 찬술한 채충순밖에 없다.

충순과 최항은 모두 推忠盡節衛社功臣에 책봉되고 문하평장사에 올랐는데, 차례대로 開國侯와 開國伯이었다.¹⁰⁵⁾ 水州 사람인 최사위는 정변 때 최항과 채충순보다 지위가 낮았었는데 초고속 승진해 현종 2년에 채충순을, 3년에 최항을 앞지르고 12년에 수문하시중 판이부사에 올랐으며, 공신호는 推忠佐理同德功臣, 작위는 開國侯였다.¹⁰⁶⁾ 이는 무력을 동원한 최사위가 정변을 주도한 핵심 중의 핵심이었음을 시사한다. 樹州 守安縣 사람으로 급제한 윤징고는 목종 때 감찰어사를 지내다가 현종이 즉위하자 시어사에 超授되더니 중추사 우산기상시에 오르고 推忠佐理功臣과 開國男에 책봉되었다.¹⁰⁷⁾ 감찰어사인 그가 정변에서 상급자인 시어사 최사위의 명령을 받아 대량원군을 도왔기 때문에 서열을 뛰어넘어 승진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추충좌리’ 공신호로도 짐작할 수 있다.

최사위, 윤징고와 관련해 주목되는 인물들이 있다. 왕용이 주관한 과거에 급제한 평장사 韓藺卿은 목종 10년 7월에 원성왕 후손을 사칭한 경주 사람 融大에게 노비를 뇌물로 받은 죄로 고향인 楊州에 유배되었는데, 그의 딸 萱莢은 현종의 배우자가 되었다.¹⁰⁸⁾ 水州 안산 사람인 김은부는 공주 절도사였을 때 피난하는 현종을 극진히 모시고 딸 셋을 바쳤다.¹⁰⁹⁾ 한인경과 김은부는 삼각산 대량원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딸

105) 『고려사』 권93, 최항·채충순전; 현화사비. 현종 원년에 연등과 팔관이 회복된다(『고려사』 현종세가). 이는 목종 때 부활된 것을 공식화한 조치로 보이지만, 전통 신앙과 유교의 조화를 초래한다.

106) 『고려사』 현종세가; 『고려사』 권94, 최사위전; 최사위 묘지명; 현화사비. 최사위가 현종 때 時宜를 獨斷했으며, 현화사 창건을 지휘하고 봉은사·大廟를 수리하고 그 외에 15개 건물을 개창 또는 수리한 데에서도 최고권력자로서의 모습이 엿보인다.

107) 『고려사』 권94, 윤징고전; 현화사비.

108) 『고려사』 권88, 후비전 목종 궁인 김씨·현종 궁인 한씨. 노비뇌물사건은 경주세력과 한인경 등 중부세력의 결탁 가능성을 시사한다.

109) 『고려사』 권94, 김은부전; 『고려사』 권88, 후비전 현종 원성태후·원혜태후·원평왕후.

을 현종의 배우자로 만들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수주 최사위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종 때 장원급제한 衿州(시흥) 출신의 강감찬도 현종 때 고속으로 승진하는 데¹¹⁰⁾ 그와 그의 집안도 삼각산의 대량원군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

수주(수원)의 최사위, 수안(김포)의 윤징고는 물론 양주의 한인경, 안산의 김은부 등 양주와 그 인근의 사람들이 삼각산에 유폐된 대량원군을 도와 등극하는 데 기여했다고 정리된다. 김은부는 인주 이허겸의 사위였는데, 이허겸의 손자로 장원급제한 이자연은 김은부를 배경으로 청요직을 역임해 나갔다. 이들은 중부세력 부상의 견인차였다. 그 외 중부지역 출신으로, 강화 韋壽餘는 문하시중을, 왕실 외척가문인 충주 劉璿은 수문하시중을 역임했다. 이천 서희의 아들로 장원급제한 徐訥은 현종의 장인이 되고 평장사 판이부사에 올랐다. 청주 출신으로 장원급제한 이가도와 郭元은 재상에 올랐다.¹¹¹⁾

귀화한 채충순은 귀화파 내지 해외파의 대부였다. 송 濶州 출신의 문사 周侁는 학사 채충순의 추천을 받고 목종 때 拾遺로서 制誥를 관장하던니 현종 때 한림학사승지를 역임하고 崇文輔國功臣과 開國男에 책봉되었다.¹¹²⁾ 채충순과 주저는 송 강남인으로서 동류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니, 주저도 현종 옹립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송 楊州 출신의 劉志誠도 현종 때 고위직을 역임했다고 판단되는데,¹¹³⁾ 그의 고향은 양자강의 북쪽 연안에 위치해 강남과 다름없으니, 채충순·주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다. 전라도 瀛州 상질현 사람인 장연우는 오월에 피난했던 부친 張儒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터인데,¹¹⁴⁾ 집안 내력으로 보아 귀화인 채충

110) 『고려사』 권94, 강감찬전.

111) 『고려사』 권95, 이자연전; 『고려사』 권94, 서희 첨부 서눌전·유진·위수여·곽원·왕가도전. 이가도의 출세는 김훈의 난을 진압한 포상이기도 했다.

112) 『고려사』 권94, 주저전; 현화사비.

113) 유지성 묘지명. 예부상서, 우복야 등을 역임하다가 靖宗 5년에 68세로 죽었다.

순·주저 등과 결탁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종 용립을 최사위·윤징고 등의 중부 출신, 채충순 등의 해외파, 최항 등의 경주 출신이 주도하고 황보유의, 강조 등이 중간에 가담했다. 이들이, 강조는 곧 탈락하지만 현종 때 정권을 장악했다. 현종 때 위수여, 유진, 한인경, 최사위, 김은부, 윤징고, 서눌, 강감찬, 이가도, 광원 등 중부 출신들이 재상으로서 정국을 이끌었으며, 채충순·주저 등의 해외파가 보조했다. 성종 때 어느 정도 형성된 중부세력이 현종 때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고려왕조의 권력은 창업과 통일의 주역인 임진강 이북 북부세력으로부터 그 보조역인 중부세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목종 때 재기를 시도했던 북부세력은 약화되었으며, 그에 속하는 서경지역(황주, 洞州 포함)은 묘청세력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정치세력으로서의 의미를 거의 상실했다.¹¹⁵⁾

현종이 양주 삼각산 시절에 그곳 승려들의 보호를 받고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즉위한 점, 현종대와 그 이후 중부세력이 집권한 점은 삼각산 주변의 위상을 상승시켰는데 이는 양주의 위상 상승을 가져왔다. 중부지역의 중심은 개경으로의 접근성, 육상과 수상 교통의 편의성, 역사적인 내력으로 보건대 양주가 될 수밖에 없었다. 留守는 도움이었던 곳에 설치되는 게 관례였으니 양주(한양)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양주의 상

114) 『고려사』 권94, 황보유의 및 첨부 장연우전. 張儒는 오월로 避亂했다가 돌아와 광종 때 客省에서 활동했다. 장연우는 현종초에 황보유의와 함께 경군 영업전으로 백관의 녹봉에 충당하는 과격한 정책을 폈다. 이는 그가 현종의 즉위에 협조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115) 중부지역의 범위는 대략 임진강 이남~금강 이북으로 설정했다. 북부지역은 서경 金猛, 황주 황보유의, 평주 庾方, 白州 趙之遴, 봉주 지채문 등이 명맥을 잇지만 세력을 회복하지는 못한다. 단, 최충의 해주최씨는 그가 장원금제해 출세하면서 명문으로 떠오르고, 평주 박수경 집안은 그 현손인 박인량대에 가서 어느 정도 위세를 회복한다. 중부세력은 11세기 중반~12세기에 인주 이씨가 세력을 떨치고 윤관의 파평 윤씨가 가세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한다.

승은 훗날 남경유수관 설치와 남경천도운동의 바탕이 되었다.

서경은 태조 사후 현종 때까지 벌어진 권력투쟁에서 여러 차례 타격을 받아 위축되었다. 서경의 지배층은 이곳의 관부나 分司에 다수가 기용되었으니 이것이 오히려 서경인의 중앙정계 진출에 족쇄로 작용한 측면도 있었다. 서경은 고구려의 수도였고 서북면의 중심지이고 군사적 요충지라는 점으로 인해 副都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으나 정치세력으로서의 의미는 퇴색했으며 중앙정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인종 때 묘청, 정지상 등의 서경천도운동을 낳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고려사』 지리지에는 목종 때 鎬京이 문종 16년에 다시 西京留守官을 칭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¹¹⁶⁾ 그렇게 단순하게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고려사』 현종세가에는 현종 원년에 “거란병이 서경에 이르렀다”¹¹⁷⁾를 시작으로 서경이 자주 보이지 호경은 보이지 않는다. 현종이 즉위하면서 호경이 서경(서경유수)으로 개칭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호경을 우대했던 목종이 살해되고 호경에서 서경으로 격하되고 서북면 도순검사를 지냈던 강조가 패배한 상황에서 서경인들은 거란과 싸워 현종에 충성하기를 망설였다. 지체문이 서경에 달려가 수습하고 신사에서 회오리바람까지 불어주어 서경성은 겨우 함락을 면했다.¹¹⁸⁾

거란군을 물리친 후 현종은 2년 5월에 평양·목역·橋淵·道知巖·동명왕 등의 신에게 勳號를 더했다. 2년 8월 을사일에 박충숙을 西京副留守로, 기사일에 참지정사 최사위로 西京留守를 삼았다. 최사위가 서경유수가 되면서 서경에도 개경처럼 皇城이 쌓여졌으니 그것은 최사위가 주도했다고 판단된다.¹¹⁹⁾ 새로 정비된 서경관제는 명칭이 西京留守였고, 그

116) 『고려사』 권58, 지리지 3, 서경유수관.

117) 『고려사』 목종세가 12년 정월조에는 강조가 ‘서경’ 도순검사로 나타나는데, 당시 강조의 정식 직함은 서북면 도순검사였다(『고려사』 권127, 강조전). ‘서경’ 도순검사는 서경에 주둔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서경’은 관례적 용어로 보인다.

118) 『고려사』 권94, 지체문전 ; 『고려사절요』 권3, 현종 원년 12월.

장관의 명칭도 서경유수였으며, 그 아래에 부유수, 판관, 장서기 등이 있었다.¹²⁰⁾ 성종 때의 모습을 회복한 것인데, 현종 때는 서경의 장관이 서경유수로 바뀌고 고위재상이 임명된 점이 다르다. 이러한 면에서 현종 때 서경의 위상은 목종 때보다는 하락했지만 성종 때보다는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경우대책은 서경인의 이반을 우려한 민심수습책이었다. 정변으로 즉위한 현종이기에 고려 정통성을 상징하는 서경을 확대할 수는 없었다. 현종은 고구려 계승을 부르짖은 태조의 손자이고, 서경권인 황주에 연고가 있는 헌정왕후의 아들이었으니, 서경을 우대하는 것이 자신의 정통성 과시에도 도움이 되었다. 서경인들은 정변을 일으킨 무신 김훈 등을 서경에 유인해 제거하는 이가도와 김맹의 현종 5~6년의 작전에 협조함으로써 우대에 보답했으며,¹²¹⁾ 왕권을 회복한 현종은 서경을 더욱 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현종 말기에 서경관제의 상층부에 변화가 생겨났다. 현종은 20년 11월에 평장사 서눌로 判西京留守事를, 좌복야 李端으로 西京留守使를 삼았으며, 21년 2월에는 채충순으로 判西京留守事를, 21년 10월에는 韓祚로 知西京留守事를 삼았다.¹²²⁾ 서경의 우두머리인 유수가 判留守事, 留守使, 知留守事로 나뉘어 함께 설치되었던 것이다. 문종 16년 정월에 김원정이 西京留守使로 내보내졌는데, 그가 이전에 서경을 遙領할 때 문종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었다.¹²³⁾ 이는 판서경유수사가 개경에서 서경

119) 『고려사』 현종세가. 최사위의 서경 사천왕사, 장락궁, 태조진전 수리(최사위 묘지 명)가 이 때였을 것이다. 서경의 여러 공사들은 현종 2년 10월에 부임한 西京留守 廣方에 의해 완성되었을 것이다.

120) 서경 掌書記를 지냈던 이자림(이가도)을 현종 6년 3월에 西京留守判官으로 삼은 데에서 판관과 장서기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현종대 서경유수 역임자는 참지정사 최사위·廣方·張營, 내사평장사 김심언, 우복야 이주현, 내사평장사 강감찬·채충순, 李龔(14년 2월 임명) 등의 순이었는데, 대개 고위재상이었다.

121) 『고려사』 권94, 왕가도전.

122) 『고려사』 권5, 현종세가 해당 연월.

123) 『고려사』 권8, 및 『고려사절요』 권5, 문종 16년 정월 ; 『고려사』 권95, 김원정전

을遙領하고, 西京留守使는 서경에서 업무를 총괄했음을 시사하는데,¹²⁴⁾ 留守使는 判留守事의 지휘감독을 받았을 것이다.

한편, 최사위는 현종 3년에 장연우, 황보유의와 함께 동경유수를 혁파해 경주방어사를 두고, 12州 절도사를 폐지해 5도호 및 75도 안무사를 두는 개혁을 주도했으며, 고려정부는 5월에 경주 朝遊宮을 철거해 그 재목으로 황룡사탑을 수리했다.¹²⁵⁾ 서경 우대정책이 펼쳐진 반면 동경 격하정책이 펼쳐진 것이었다. 현종의 조모에 대해 합주이씨 설과 경주김씨 설이 대립하고 있다.¹²⁶⁾ 경주 홀대는 현종이 大良院君으로 불린 사실과 함께 전자의 설이 유력함을 뒷받침한다. 현종은 조모가 합주(대량성) 출신이고 부친의 유배지 사수에서 자라 두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었지만, 경주에 대한 애정은 그리 깊지 않았다. 최사위는 水州, 장연우는 영광 출신이었고, 황보유의는 황주 출신으로 여겨진다. 이런 연유로, 국왕이 순력하기에 너무 멀어 副都로서의 기능이 별로 없는 경주를 특별 대우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종은 5년에 경주방어사를 안동대호부로 고쳐 승격시키더니 21년에는 다시 동경유수로 삼았다. 당시 銳方이 올린 『三韓會土記』에 ‘高麗三京’의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둔 것이라 했다.¹²⁷⁾ 동경유수의 회

124) 西京留守使가 서경에서 근무했음은 황보영과 王夷甫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고려사』 권6, 靖宗 7년 10월; 『고려사』 권7, 文宗 7년 10월. 留守도 현지에서 근무했을 것이다.

125) 『고려사』 현종세가; 『고려사』 권94, 최사위전; 『고려사』 권56, 지리지1 서문과 『고려사』 권57, 지리지 2 동경유수관 朝遊宮 철거는 경주가 국왕 순력지로서의 위상을 상실한 것인데, 황룡사탑 수리를 경주 崔沆이 주도했으니 자가당착이었다.

126) 荻山秀雄(1920 「三國史記新羅紀結末の疑義」 『東洋學報』 10)과 이기백(『삼국사기론』 『문학과 지성』 1976년 겨울호)은 합주이씨설을, 하현강(1988 앞의 책, 384~386쪽)은 경주김씨설을 피력했다. 泗水에는 王郁이나 그 외가의 식읍이 존재했던 것 같다.

127) 『고려사』 권57, 지리지2, 동경유수관.

복이 풍수도참설로 인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경주 사람들의 반발이 심했음을 상징한 것으로 보이니, 경상도에 연고가 있고 즉위에 경주인의 도움을 받은 현종으로서는 경주인의 반발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다. 현종은 13년에 장자 延慶君 欽(덕종)을 태자, 차남 亨을 平壤君(靖宗), 삼남 緒를 樂浪君(문종)에 책봉했다.¹²⁸⁾ 아들의 칭호를, 서경 상징의 평양군과 경주 상징의 낙랑군으로 정했으니, 겉으로나마 서경과 경주에 대한 대우의 균형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다. 현종은 22년 정월에 좌복야 梁禎으로 東京留守使를, 5월에 李龔으로 司空 좌복야 判東京留守事를 삼았다. 덕종 즉위년 10월에 憲臺가 좌복야 판동경유수사 李龔을 재물 橫斂과 家奴의 역마 借乘 죄로 탄핵하니 왕이 처벌했다.¹²⁹⁾ 이는 동경유수에도 서경유수에처럼 判留守事와 留守使가 들어졌음을 알려주는데, 판동경유수사는 李龔 이후로 임명되지 않은 것 같다.

현종 22년 5월에 즉위한 덕종은 원년 정월에 어사대가 大府卿 왕희걸, 右司郎中 유백인, 예부낭중 최복규, 원외랑 이응년이 서경에 分司하면서 求田殖貨했다고 탄핵하자 그들을 면직시켰다.¹³⁰⁾ 이는 현종 때 서경에 분사제도가 정비되었음을 시사한다. 덕종은 2년 11월에 元穎으로 西京副留守 知分司戶部事를 삼았으니,¹³¹⁾ 서경 분사제도가 지속되었음을 알려준다. 서경은 분사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동경보다 훨씬 실속을 갖추어 위상이 높았다. 서경유수는 靖宗 후반기에 호경으로 승격되었다가 문종이 즉위하면서 서경유수로 환원되었고,¹³²⁾ 문종 16년에 西京留守官

128) 『고려사』 권4, 현종 13년 5월·6월; 『고려사』 권5, 덕종세가 서문; 『고려사』 권6, 정종세가 서문; 『고려사』 권7, 문종세가 서문. 낙랑은 낙랑공주와 낙랑왕 김부에서 유래했으니 경주였다.

129) 『고려사』 권5, 현종 22년 정월·5월 및 덕종 즉위년 10월.

130) 『고려사』 권5, 덕종 원년 정월.

131) 『고려사』 권5, 덕종 2년 11월. 分司司憲은 이미 성종 때 들어졌다. 성종 9년 9월 교서에 태조가 서경에 ‘分司職務’했다고 했는데 이는 廊官, 衙官 등을 가리켰을 것이다.

으로 확립되었다.¹³³⁾

VI. 맺음말

태조 왕건은 평양에 서경을 경영해 자주 행차했다.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개경정부와 유사한 廊官, 衙官, 병부령 등으로 구성된 서경정부를 만들었으니, 서경은 개경과 동등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는 치세 말기에 서경에 행차하지도, 서경천도를 언급하지도 않았으니 서경세력이 후계자 혜종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혜종정권은 왕식렴의 서경군대와 박수경의 평주군대를 핵심으로 한 임진강 이북 북부세력에 의해 붕괴되었다.

정종을 추대한 서경세력은 서경천도를 시도하다가 결집력이 약해, 광종을 내세운 평주·황주를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에게 패배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광종은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 하여 서경을 상대적으로 낮추었다. 광종이 즉위하면서 평주세력과 황주세력이 집권했지만 평

132) 『고려사』 권6, 정종 7년 10월·11월 ; 『고려사』 권53, 오행지 火, 화재, 정종 12년 12월 ; 『고려사절요』 권4, 문종 원년 7월 ; 『고려사』 권7, 문종 10년 8월. 靖宗 때 호경 회복은 정종 때 전통의례가 확립되는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33) 동경유수도 동경유수관으로 칭해졌는데 이 무렵일 것이다. ‘留守官’은 우두머리를 한정하지 않는 포괄적 용어로 여겨진다. 判留守事는 留守使가 파견되면 설정될 수 있으나 留守가 파견되면 설정되지 않았다. 판서경유수사는 문종의 김원정 평출 이후 대개 공식으로 남다가 숙종~의종 때 더러 나타난다. 서경·동경·남경 유수관의 본격적 정립기에 留守使가 장관이었는데, 서경에는 때로 그 위에 判留守事가 임명되었다. 삼경 유수관의 우두머리는 의종말엽에 서경유수 조위충의 예처럼 留守로 통일된 것으로 보인다.

주세력은 중기에, 황주세력은 말기에 숙청당했다. 이러한 결과 경종 때 공신·호족이 집권했음에도 서경·평주·황주 출신의 관료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경주계 儒者들의 도움을 받아 즉위한 성종은 경주를 유수경인 동경유수로 승격시켰다. 하지만 후반기에 황주원낭군 출신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해 전통과 西都를 중시했다. 서도를 중앙집권체제의 일환으로 西京留守라 하여 유수경으로 격하했지만 동경유수를 東京留守使로 격하해 동경에 대한 서경의 우위를 드러냈다. 목종 때 천추태후 세력은 서경유수를 鎬京으로 승격해 더욱 중시하고 목종이 이곳에 자주 행차했다. 천추태후는 김치양 등 洞州 출신을 중심으로 임진강 이북의 북부지역 사람들을 세력으로 규합해 국정을 운영했다.

목종의 후계를 둘러싸고 천추태후 세력과 대량원군 세력이 갈등을 일으켰다. 대량원군 세력이 정변을 일으키고 변절한 강조가 중간에 개입해, 현종을 옹립하여 천추태후 세력을 숙청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강조가 실각한 후 대량원군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가운데 현종의 즉위와 왕권옹호에 공헌한 중부세력이 요직에 포진해 그들의 시대를 열었다.

현종은 즉위후 호경을 서경유수로 격하했지만 서경이 지닌 이념적·국방적 중요성과 자신의 정통성을 위해 서경에 황성을 건설하는 등 서경을 우대했다. 동경유수사를 경주방어사로 격하했다가 경주세력의 반발이 거세지자 동경유수로 승격시켰지만 상징성이 강했고 동경은 기능이 약화되어 갔다. 반면 삼각산 주변 사람들이 현종 즉위에 공헌을 세워 정계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양주의 지위가 상승해 훗날 남경 창건의 바탕이 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 『고려사절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균여전』

허흥식 편, 1984 『한국금석전문』(중세 상), 아세아문화사.

김용선 편, 1993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 출판부.

이지관 편, 1994·1995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고려편)』, 가산문고.

池内宏, 1919 「高麗穆宗朝の禍亂」 『동양학보』 9.

荻山秀雄, 1920 「三國史記新羅紀結末の疑義」 『東洋學報』 10.

荻山秀雄, 1922 「高麗顯宗の即位に關する高麗史の曲筆を論ず」 『동양학보』 12.

하현강, 1967 「고려서경고」 『역사학보』 35·36.

하현강, 1970 「고려서경의 행정구조」 『한국사연구』 5.

하현강, 1988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변태섭, 1976 「고려의 중추원」 『진단학보』 41.

이기백, 1976 「삼국사기론」 『문학과 지성』 겨울호.

이기백 편, 1981 『고려광종연구』, 일조각.

이기백, 1990 『고려귀족사회의 형성』, 일조각.

이태진, 1977 「김치양 난의 성격」 『한국사연구』 17.

김두진, 1979 「고려 광종대의 전제왕권과 호족」 『한국학보』 15.

김당택, 1980 「고려목종 12년의 정변에 대한 일고」 『한국학보』 18.

이혜옥, 1982 「고려초기 서경세력에 대한 일고찰」 『한국학보』 26.

이수건, 1984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전기웅, 1985 「고려 경종대의 정치구조와 시정전시과의 성립기반」 『진단학보』 59.

- 김용곤, 1986 「고려 현종대의 문묘종사에 대하여」 『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 이근화, 1987 「고려 태조대 북방정책의 수립과 그 성과」 『박성봉교수회갑기념논총』.
- 이근화, 1987 「고려성종대의 서경경영과 통치조직」 『한국사연구』 58.
- 진영일, 1987 「고려제왕의 서경순행고」 『제주대학교 논문집』 26.
- 정용숙, 1992 『고려시대의 후비』, 민음사.
- 홍승기 편, 1996 『고려 태조의 국가경영』, 서울대출판부.
- 강옥엽, 1998 『고려 전기 서경세력의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 고구려연구회 편, 1999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학연문화사.
- 안병우, 2001 「고려시기 서경의 재정구조」 『전농사론』 7.
- 구산우, 2003 「고려 성종대 정치세력의 성격과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14.



Abstract

The Political Situation and Seogyeong in the Early Koryeo

Kim, Chang-Hyun

This is to study Seogyeong(West Capital) in relation with political situation in the early Koryeo dynasty. King Taejo managed Seogyeong in Pyongyang and established the government of Seogyeong which was equal to that of Gaegyeong. Taejo didn't visit Seogyeong to protect his successor(Hyejong) at the end of his reign, but Hyejong's reign was disintegrated by the officials from the northern area of the dynasty.

The power group of Seogyeong tried to move the capital to Seogyeong with crowning King Jeongjong, but it was defeated by the counterforce that was representative of Pyeongju and Hwangju. King Gwangjong called Gaegyeong Hwangdo, and named Seogyeong(西京) Seodo(西都). Though the group of Pyeongju and that of Hwangju grasped political power, they were purged by Gwangjong. As a result during the reign of King Gyeongjong the officials from Seogyeong, Pyeongju and Hwangju were not distinguished.

King Seongjong took a serious view of tradition and Seodo in the latter half of his reign. He downgraded Seodo as Seogyeongyusu(西京留守) for centralization, but he considered it as its superiority to Donggyeong(East Capital). The power of Cheonchu Empress Dowager in the reign of King Mokjong was formed on the basis of the northern part, and it made Seogyeongyusu be evaluated to Hogyeong(鎬京). The group of Cheonchu came into conflict with that of Daeryangwongun because of the succession of the

crown. The power of Daeryangwongun enthroned King Hyeonjong with carrying out political change and took the leadership.

King Hyeonjong downgraded Hogyeong as Seogyemyusu, but he treated Seogyemyong considerately. According as people around Sangak mountain contributed to enthroning of King Hyeonjong and entered the political world actively, the position of Yangju was elevated and the officials from the middle area of the dynasty held important posts in the government.

Key Words : Seogyemyong and Its Power, Pyeongju Power, Hwangju, the Power of Cheonchu Empress Dowager, the power of Daeryangwongun

K C I

к с і